

# 평면유형 변화로 본 공영단독주택의 근대적 변용

유재우

(부산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주제어 : 공영주택, 근대주거, 근대화, 한국주택공사

## 1. 서론

대한주택영단(大韓住宅營團)은 광복 직후에 한국전쟁시 파괴된 주택을 복구하고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되어 공영단독주택(公營單獨住宅)을 제안하였다. 1954년 선보였던 공영주택은 광복이전의 재래민가와는 외형상 큰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주거형의 급변 현상 원인은 건축 재료와 기술 발전에 이르기 까지 등 다양한 이유가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공영주택을 중심으로 당시 광복 이후 한국인의 주체적 입장에서 주거형을 어떻게 이해하고 변모시켜 왔는지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주택영단은 광복직후 국가가 설립해 근대 건축교육을 받은 이들이 소속되어 있었고, 이들이 새로운 주거형을 공영주택 형식을 통해 표출해 왔기 때문에 공영주택 평면형에는 '근대적 주거형(住居型)'이 새롭게 성립되어 가는 통시적인 과정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근대주택 형성기<sup>1)</sup>

인 광복 이후부터 공영단독주택형이 완성되는 1970년대까지 '근대적 주거'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에 나타난 변화 특성을 미시사적(微視史的) 측면에서 분석해, 공영주택을 중심으로 근대주거로의 성립 과정에 있었던 주거사적 의미를 도출하고자 한다. 아울러 광복전후에 있었던 주택형의 지속과 변용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 향후 주거문화 방향을 예측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을 두고자한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택평면형은 일정 기간 동안의 삶의 질서가 응축된 기호체계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기호체계인 한 시대의 평면형은 유기체와 유사하게 시대적 환경을 수용하며 새로운 형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근대 주거형의 형성기라 할 수 있는 광복 이후 제안된 공영주택에는 다양한 근대적 주거 변화 과정이 지층처럼 내재되어 있는 사료(史料)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료를 대상으로 광복 이

\*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연구비(2년과제)의 지원으로 작성되었음.

1) 우리나라 근대주택 형성은 조선후기부터라고 볼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광복 이후 1960년대 정부주도의 산업 근대기를 포함하고자 한다.

후에 진행된 근대적 주거형의 형성 과정에 있었던 평면형들의 시기별 변화 패턴과 광복이전의 주거 구성실들 간의 기호적 관계를 시계열적인 관계로 분석해 근대적 주거로 이행되는 과정을 종합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의 조사 평면으로서 1954년부터 1977년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설계해서 공급한<sup>2)</sup> 공영 단독주택 87개 평면형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 2. 이론 고찰

### 2-1. 기호학 이론

기호학(記號學, Semiotics)은 20세기에 소쉬르 등의 언어학과 레비 스토르스의 구조주의를 기반으로 학문적인 체계로 성립된 학문이다. 1970년대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기호학은 인접 인문, 사회, 인지과학 등과 학제간의 복합적인 영역으로 적용되며<sup>3)</sup> 조형기호학, 문화기호학, 텍스트언어학 등의 새로운 학문으로 확장되어 왔다. 현재에는 기호학의 원리를 활용해 문화적 현상을 새로운 방법과 시각으로 문학, 광고, 언어, 영상 등 광범위하게 접목되어 많은 학문적 성과가 생산되고 있다.

기호체계와 관련된 기호적인 몇 가지 고유한 특성<sup>4)</sup>들은 다음과 같이 현재에도 통용되고 있다.

2) 대한주택공사에서 발행한 '대한주택공사주택단지총람(1954 ~1970, 1971~1977, 1978~1980)'에 게재된 단독주택평면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이 중 전체 기조를 이해하기 위해 국내 채류를 위한 외국인 주택과 2층 주택이나 특수한 평면형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평면이 시행된 지역과 시기는 부록에 기재하였다.

3) 고영근, '텍스트이론', 대우학술총서 논저 448, 아르케, 2002, pp10-15.

4) 소쉬르 이후 촘스키의 생성언어학, 프라이의 '항목중심적인 개념'의 폐기와 '상호관계적 개념'으로의 확장, 엘름슬라우 등에 의해 발전되어 왔다. 소쉬르의 이항대립적인 언어(랑그, 기의)와 발화(파롤, 기표)의 대립관계, 공식성과 통시성의 대립관계라는 주요개념은 현재까지 유효하게 통용되고 있다.

첫째, 기호체계에는 이항적인 구조원리를 들 수 있다. 기호체계는 외부로 드러난 형태체계인 기표(記標)와 내부의 의미체계인 기의(記意)간의 관계로 구조화된다. 구조의 특성<sup>5)</sup>은 구조를 이루는 구성요소의 내적인 결합력으로 하나의 전체(wholeness)를 이룬다. 이 전체에 속한 요소들은 단순히 결합된 합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배치와 구성의 성질을 결정하는 고유한 일련의 질서에 따라 특성을 갖게 되는 복합구조체이다. 이는 내적 또는 외적 요인에 따라 변환(transformation)되는 가변성을 갖게 되어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시공간 내에서 새로운 구조를 갖는 형(型)으로 수렴, 조절(self-regulation)되는 특성이 있다.

둘째, 기호체계의 형태체계와 연관되어 있는 의미체계에 관한 통시적인 원리를 갖는다. 기호체계는 기표에 해당하는 '형태체계'와 기의에 해당하는 '의미체계'로 구성된다. 형태체계는 기호요소의 관계에 따른 공간적인 배열에 따르며, 반면 의미체계는 통시적인 관계에 의해 조건이 지워지므로 시간적인 굴절을 갖게 된다. 즉 형태체계는 공식적인 관계에 따라 형태적인 관계의 변화가 생기며, 그 의미체계가 시대나 문화적 변화요인에 따라 사회적 구성원들에게 새롭게 조정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택평면의 외연(外緣)의 건축적 질서와 내연(內緣)의 삶의 질서가 결합된 문화적인 기호체계라 볼 수 있다. 다른 학문분야 경우처럼 기호론을 건축분야에서도 근대기에 있었던 주거의 변화질서와 이에 따른 의미를 해석하는데 부분적이나마 적용해 보하고자 한다.

5) 잔 피아제는 구조를 특성 짓는 기본적인 개념으로서 '전체성의 개념', '변환의 개념', '자기조절의 개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오원교 역, '구조주의와 기호학, Structuralism and Semiotics, Terence, Hawkes', 신아사, 1984, 제인용)

## 2-2. 이론의 적용

거주자의 삶의 형식들이 주택평면에 반영된다. 일정 시기마다의 특정 공간적 범위 내에 속한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패턴이 수용되는 ‘평면유형’으로 정착되며 지역별, 시대별로 독특한 주거형이 지속된다. 이러한 평면형에는 삶의 질서가 특징하게 구조화되며, 이후의 내외적인 환경에 따라서 다시 조정되어 간다. 이 과정에서 공간구성요소들이 선별적으로 지속되거나 또는 소멸되고, 공시적 차원에서는 구성요소 사이의 연결, 인접, 폐쇄, 분화, 압축, 융합 등의 방식으로 삶의 질서가 평면형에 재구성된다. 이러한 전제에서 볼 때, 근대기 공영주택에 나타난 변화 특이성과 의미를 살펴보는 데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주거형의 변화과정에 나타난 주거 구성요소들의 결합 특성을 살펴보는 데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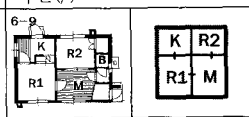
이를 위해 기호론에서 기호체계에 전제가 되는 형태구성 요소를 (표1)과 같이 칸 단위의 공간 단위요소로 약호로 표현하고 각 단위요소들의 결합구조를 중심으로 살펴 평면기호체계를 분석한다. 이때, 각 공간단위요소는 칸으로 구분될 수 있는 실을 단위로 한다. ‘기초단위<sup>6)</sup>는 공간단위 두 개 이상이 연결된 개념으로 설정하고, 기초단위가 모인 개념을 ‘복합단위’ 개념으로 둔다.

복합단위는 생활형에 알맞게 기초단위를 연계해 다양한 평면형을 생성시키게 된다. 평면형에는 기초단위들이 여러 가지 패턴을 이루며 평면형을 생성된다. 이러한 평면형에 대해 시기별로 변화 양상을 평면 계열별로 종합할 수 있다.

둘째, 주거형 변화과정과 결과에 나타난 다양한 주거형의 의미해석에 적용한다.

평면 내의 부엌, 마루, 안방 등 주요 실들의 관계를 약호화해서 시기별로 나타난 남녀공간과 가족공간의 관계, 公·私의 관계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근대기의 경우에는 급격한 외형적 변화와 함께 외래주거문화와 접촉을 갖게 되며 다양한 변화와 관계들도 연계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다. 과도기 상황에서 나타난 공영주택 평면형에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평면형들의 궤적 속에서 근대적인 주거로 이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1. 주거 단위공간요소의 기호화

구분	표현 내용	표현 방법
단위공간 요소	단위공간의 약호 (記號素단위)	안방(R1), 마루(거실,M), 부엌(K), 온돌방(R2, R3), 화장실(t), 식당(D), 욕실(B), 현관(E), 복도(C),
단위공간 요소 구성체계	기초단위	R1-M, R1/R2
	복합단위	R1-M-R2, K-R1/R2
	단위공간요소 사이 개구부에 따른 동선연결	실간 개방(표기 없음), 동선연결(-), 벽 등으로 동선 차단(/)
평면기호	평면형의 기호화 표현	
		평면형      기호적 표현

## 3. 광복이전 공영주택 고찰

### 3-1. 공영주택의 성립

광복 이후 사회적 혼란 속에서 조선주택영단의 자산을 접수받아 대한주택영단으로 출범하였다. 한국전쟁 시기 부산으로 이전한 대한주택영단에서 처음으로 실험주택<sup>7)</sup> 수준에서

6) 기호론에서의 기호구성체계를 형태소, 단어, 구문, 문장 등으로 구분하는 방식을 이와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다.

7) 주택영단에서는 1951년 피난민들을 위해 부산시 범일동 영선동, 감만동에 4~5평 규모의 목조 장육형식의 救護住宅 550호를 건축하였다. 1952년 영도 청학동에 9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재건축택 계획 특성은 '9평형 규모로 하였다. 가구규모 설정 근거로는 첫째, UN주택통계에 따라 가구당 평균 거주면적이 6평에 50%의 여유를 둔 9평형으로 계획하였고, 둘째, 4급 공무원 수준의 엔젤指數를 참조하였다. 9평 규모 내에서 장차 입식 생활형으로 변할 것이라 예상해, 노력 끝에 1954년 공영단독주택으로 3가지 평면을 전면2칸의 겹집형태인 田字形 平面<sup>8)</sup>으로 계획하였다(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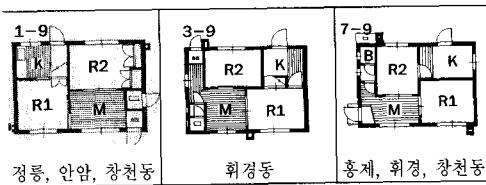


그림1. 공영단독주택(1954) 사례1)

이 평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모두 부엌-안방-마루-침실의 동선구조를 갖고, 전면 2칸, 측면 2칸의 겹집형태에 현관과 화장실이 부가되어 있다. 방이나 마루의 규모는 1.5평에서 3평 미만인 재래주택 규모와 유사하고 방과 마루 사이는 여닫이나 미서기문을 통해 연결된다. 이는 제례 등의 비일상적 행사시 마루와 방 사이의 미서기문을 제거해서 생활공간을 가변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 계획 방법이다. 특히 부엌 계획은 재래식 주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즉, 부엌에는 안방 구들과 결합된 연탄아궁이가 마련되어 있고 찬마루를 거쳐 안방과 연결된다. 바닥이 낮은 아궁이 상부에 안방과 연결된 수장용 다락을 설

평 규모의 마루, 부엌, 반 한 칸과 변소가 있는 흙벽돌조 실험주택 200호를 건축하였다(대한주택공사 二十年史, pp204~206. 요약).

8) 1953년 12월 서울 환도 후 처음으로 서울 안암동에 49채의 재건축택을 완공하였다. 영단에서는 이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대한주택공사 二十年史, pp208~209).

치해 단면적으로 공간을 넓게 활용하고 있다. 부엌 출입동선은 내부로는 안방과 직접 연결되어 있고, 주택 뒤로 통하는 외부출입문이 있다. 안방을 매개로 주부생활공간인 부엌과 사회적 공간즉, 인 마루와 건넌방의 순서로 연결된 형태이다. 따라서 재래주택처럼 마루나 안방 이외의 공간과 주부동선이 길고 안방을 통해서만 부엌으로 출입이 가능한 안채의 폐쇄적인 질서가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2. 광복전후 주택 비교

구한말 재래주택이나 일제강점기의 공영주택과 광복 이후 처음 나타난 공영주택과의 비교를 통해 변화나 지속관계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한지역의 전통 재래주택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3칸집의 오막살이계와 4칸집의 남부지방을 포함한 기호지방의 민가형을 들 수 있다<sup>11)</sup>. 먼저 오막살이계 주택은 草家三間집이라고 불리는 부엌-안방 그리고 接客 기능을 겸하는 건넌방으로 구성된 一자형 집이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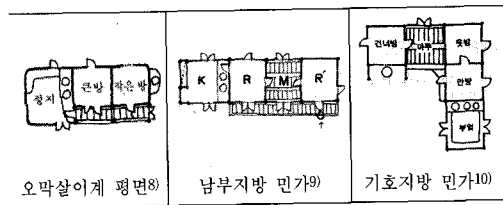


그림2. 광복이전 재래민가 사례

이는 마당에서 각 방으로 출입이 가능해 방

8) 조성기, 韓國南部地方民家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학보, 24p

9) 조성기. 위 논문, 65p

10) 조성기, 한국 중부형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7권 제3호, 1991

11) 학자에 따라 재래민가 분류 관점이 다소 다르다. 예를 들면 경북북부의 여간집이나 제주도형의 겹집이나 호남지방의 경우 부엌을 중심으로 안방 방향과 별도의 모방이 있고 마래가 안방의 단부에 있는 홑집형 사례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측 답사를 기반으로 한 조성기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 벽으로 구획된다. 반면 畿湖지방의 경우 안채는 부엌-안방-마루(혹은 대청)-건넌방의 동선에 부엌이 안마당으로 돌출된 ㄱ자의 곱은자 형태이다. 대부분 一자의 홑집의 오막살이계<sup>13)</sup>의 상황과는 달리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가 있다.

둘째, 일제강점기의 대표적인 주택유형으로는 '도시형한옥'<sup>14)</sup>과 일본인이 당시의 극심한 주택부족현상을 해소하고 居留民을 위해 조선주택영단<sup>15)</sup>을 설립해 공급한 영단주택 중 두 가지 평면형을 들 수 있다(그림3).

도시형한옥은 畿湖지역 재래민가 안채영역의 동선과 유사한 곱은자형의 부엌-안방-마루-건넌방 구성의 '안채'에 대문간, 온돌방, 화장실 등의 '부속채'가 결합되어 전체 모양이 ㄷ자나 ㄱ자형을 이룬다. 이는 농경생활을 위해 적정 규모의 마당이 필요한 재래식 주거형과는 달리 근대의 도시적 상황에서 필지구획 제한 내에서 짧은 동선을 갖도록 안마당을 중심으로 채를 압축시켜 전체 규모를 경제적으로 축소시킨 평면형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마루에 미서기문을 설치하였고 위생시설을 갖는 생활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공간을 편리하게 내부공간으로 변용시키려는 근대적 요구를 수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조선주택영단에서 1941년 '甲型'과 '乙型' 주택은 일본 근대주거형<sup>16)</sup>을 한반도에 전파한

경우이므로 주택 공간구분 방식과 실의 용도가 우리와 다소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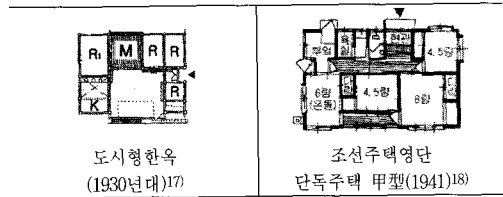


그림3. 1940년대 일제강점기 평면형 사례

이 평면형은 속복도를 경계로 前面部와 後面部의 칸들이 결합된 겹집 형상이다. 전면부는 두 세 칸의 다다미방에 家長의 接客과 가족 단란공간을 포함하고, 후면부에는 부엌, 욕실, 화장실, 다목적실 등의 부속기능이나 주부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른 평면형과는 달리 전면부와 후면부에 있는 각 실 간은 속복도를 통해 동선을 연결하며, 전면부 실들 사이는 미서기문으로 동선을 연결한 구조이다. 이는 일본의 근대 주거형과 유사하며, 우리의 재래주택과 다소 다른 문화적 차별성을 갖는다.

#### 4. 광복이후 공영주택 평면형 고찰

##### 4-1. 광복이후 공영단독주택의 특성

조사대상 평면을 홑집과 겹집으로 대분류한 후, 겹집은 마루가 있는 마루형<sup>19)</sup>과 마루가 없는 현관홀식<sup>20)</sup> 및 속복도식<sup>21)</sup>으로 세분해 <표

교수의 연구 결과와 객관적인 내용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13)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3교 가족수가 많은 규모의 가구에서는 마루보다 온돌방이 더욱 필수적인 선택이 되었다.

14) 근대적 도시 환경에서 판매를 위해 집장사들이 반가 등의 넓은 필지를 분할해 구조나 처마나 부연 등 부재를 단순화시키고 경제적으로 지은 주택을 '도시형한옥'이라 한다. 1960년대까지 서울 가회동 등을 포함해 서울 전역에 걸쳐 보급되었다.

15) 조선주택영단은 광복 후 대한주택영단에서 접수한 이후, 1962년 대한주택공사로 확대 개편되었다.

16) 1910년대 이후 일본의 근대식 주거형을 동선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속복도형, 居間중심형, 현관홀형 등이 있다.

17) 송인호,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학교 박론, 1990, P107의 도면 인용

18) 조선주택영단의 표준형 주택 도면(1941)을 인용

19) 마루형이란 현관을 통해 주택 내부로 들어와서 마루를 중심으로 각 실로 출입이 가능한 평면형을 지칭하기로 한다. 이는 광복이전의 주택유형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적용한다.

2.>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2. 공영단독주택 평면유형 분류

구분	겹집 형태							홀집 형태			소계	
	마루형				현관 홀형	속복도형			마루형			
	2MK	3MK	3MDK	4MK		2K	3K	5K	2MK	2MK		3MK
1954	3											3
1955												-
1956	2					2			2			6
1957	1	4										5
1958		2										2
1959		4								2	2	8
1960		2		4				1				7
1961		2	1	2	1					1		6
1962		6			1	2						9
1963	3	5										8
1964	4	3										7
1965		1			1	2						4
1966	1	4										5
1967		1										1
1968		7			1							7
1969		4										4
1972		1										1
1974		1										1
1977		1										1
합계	14	49	1	6	5	4	1	2	3	2		87
	70				10			7				

















주) 기호표시 : M(마루), K(부엌), D(식당)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마루가 있는 겹집형태가 공영주택평면형의 가장 보편적인 평면형(70/87)이다. 겹집 이외에는 홀집(5/87)과 반겹집(2/87)으로 대별된다. 겹집은 마루형과 현관홀형(5/87)과 속복도형(5/87)으로 구분될 수 있다. 1954년에 최초로 제안된 공영주택은 7평 규모의 현관홀형을 기본으로 1965년까지 제안되었다. 1956년에는 이와 유사한 9평 규모의 반겹집형태도 나타났다. 이 영향을 받아 8평에서 15평 규모의 1960년 전후에 5종의 7자와 1자형의 홀집이 제안되었다. 속복도형은 1960년부터 제안되었다.

20) 여기서의 현관홀식은 소규모 주택에서 마루가 없고 현관에서 바다 마감이 마루인 소규모 홀을 통해 각 온돌방이나 부엌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평면형을 의미한다.

21) 속복도식은 현관을 거쳐 속복도를 통해 전면부나 후면부의 각 실에 출입할 수 있는 평면형을 의미한다. 주택 규모와는 관계없이 생활형에 가까운 개념이라 볼 수 있다.

표3. 공영 단독주택 평면형(마루가 없는 유형)

년도	현관홀형	속복도형	홀집 형태	
			반겹집형	홀집형
1954				
1956				
1957				
1959				   
1960				
1961				
1962		 		
1965		 		
1970				

광복이후 공영단독주택 조사대상의 평면형은 마루가 없는 평면형들(표3.)과 마루형(표4.)으로 구분해서 정리하였다. 마루형을 제외한 전면 칸은 모두 전면 2칸이나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홀집의 경우는 4칸까지 제안되었다<sup>22)</sup>. 현관홀형은 7평에서 8평의 소규모이며, 모두 2K로 제안되었다. 반면 속복도형은 12평에서 20평의 규모의 3K부터 5K까지 비교적 많은 방이 있는 평면형으로 제안되었다. 마루

22) 홀집형은 1959년 김포불량지구 철거 후 개축을 위해 경기도 민가형태와 유사한 곱은자 형태의 4칸집이 한차례 제안되었다.

표4. 공영단독주택 평면형(마루형)

연 대	전면2칸 구성 평면형	전면3칸 구성 평면형			
		모듬이부엌형		중앙부엌형	
		M과 K사이 문설치	M과 K사이 문제거	M과 K 사이 문설치	M과 K사이 개방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이후					

가 있는 반겹집 형태의 경우도 2K형의 9평 규모이며, 홑집형은 8평에서 15평까지 확대되며

2K 및 현관홀이 있는 2MK, 3K 규모까지 제안되었다.

4-2. 광복이후 공영단독주택 변화 특성

공영단독주택의 평면구성 주요 요소인 부엌, 안방, 마루의 연결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시기적으로는 3년 단위로 구분해서 세부적인 변화특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1) 1954년부터 1956년(초창기)의 평면형

1954년의 전면이 2칸, 9평형 규모의 평면형이 처음 제안된 이후 1956년까지 5종의 유사 평면형이 제안되었다.

이 평면형의 특성은 재래식 주택구조와 유사하게 마루에서 안방을 거쳐 아궁이가 있는 재래식 부엌으로 내부동선이 연결되어, 부엌이 폐쇄적인 공간으로 계획(이하, 마루형 평면 중 후면부 모퉁이에 부엌이 있는 평면유형을 ‘모퉁이부엌형’이라 한다)되고 있다. 반면에 재래주택과 같이 부엌에서 뒷마당으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주택평면 전면에는 마루-안방, 후면에는 안방과 연결된 부엌과 부엌과는 벽으로 구획된 온돌방으로 구성된 겹집 2칸을 기본형(2MR)으로 한다. 여기에 현관과 화장실 등이 부속되어 있는 계획안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부엌이 폐쇄적으로 구성된 평면형은 1956년부터 전면 3칸, 12~17평형 규모로 확대되며, 전면부에는 마루를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면부는 부엌, 온돌방 그리고 화장실 및 욕실을 부가한 평면형(3MR)으로 확대 발전된다(그림4. 참조). 폐쇄적인 모퉁이부엌형의 특성은 부엌 아궁이를 취사와 난방을 하기 위해 가장 경제적인 구조이지만, 주부는 마루에서 안방을 거쳐야만 부엌으로 출입될 수 있는 구조이다.

이러한 초창기 공영주택안은 재래 주거형과 흡사하고 제안 내용의 주류를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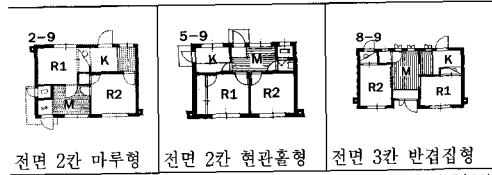


그림4. 초창기(1954~1957) 공영주택 평면형23)

이 외에 1956년에 전면 2칸에 마루 없이 2칸 모두 온돌방으로 계획하고 현관에는 소규모의 마루홀이 있는 평면형(이하 ‘현관홀형’)도 제안되었다. 현관홀형은 부엌과 방 2개(2K)로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전면2칸 후면부에는 현관 역할을 하는 복도나 복도와 유사한 반 칸 크기의 현관홀을 부가한 형태이다. 이는 일종의 반겹집 형식(이하 ‘반겹집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평면형의 특성은 9평에서 7평 규모로 축소되며 전체 규모는 극단적으로 협소하다. 축소과정에서 마루를 소거하고 온돌방으로 계획(2K)한 방법이다. 이 현관홀 출입방식은 일제강점기의 공영주택 구조와 흡사하며, 단위 공간은 재래 오막살이계 안채의 칸 구성 방식과 유사하다. 반면 공영주택의 경우는 여기에 현관홀과 화장실을 부가한 형태이다. 이는 한 세대가起居하기에는 다소 협소한 7평 규모 내에서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미서기 문을 설치해(1956, 4, 그림4.) 생활공간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려는 계획 방법이나 혹은 방 사이에 벽을 설치해 공간 이용의 융통성보다는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는 방법(1956, 5)도 적용된다.

2) 1957년부터 1962년(다양기)의 평면형

1957년부터 1959년까지는 주택 규모가 전면 3칸, 12평에서 20평 규모까지 확대되며 다양한 방법들이 적용된다.

① 1957년부터 1959년까지의 특성

23) 이하 모든 표에는 공영주택 도면번호(표5. 참조)와 평형을 표기(예, 2-9 표기는 2번 도면, 9평형의 의미)하였고, 설명 내용 중 괄호안의 표기는 계획연도와 도면번호 표기를 함.



전기와 같은 전면2칸, 측면2칸의 폐쇄적인 '모퉁이부엌형'이 계속 제안되었고, 이 방식을 원형으로 전면3칸, 측면 2칸으로 확대 적용되는 시기이다. 이 외에 다른 평면형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평면형의 특성으로는 첫째, 전면부는 안방, 마루, 건넌방이 연결된 형태이고, 부엌의 깊이를 후면부 보다 복도나 출입문의 폭 정도 넓게 계획해서 직접 문을 달거나 또는 후면부와 폭과 같거나 넓게 하고 여닫이문을 설치해 복도를 거쳐 부엌과 동선을 연결한 평면형의 등장이 가장 특징적이다. 이는 모퉁이부엌형에 개폐가 가능한 문을 설치해 변용한 평면형으로서 1959년에 3종이 제안되었다.

넷째, 마루형과는 별도로 재래주택과 외관이 유사한 홑집형도 제안되었다. 1959년에 4개안이 제안되었는데, 이는 온돌방 두세 개와 부엌을 갖춘(2K~3K) 규모이며 현관홀에서 안방을 거쳐 부엌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후면부에는 소규모 화장실 또는 벽장, 아궁이, 갓복도 등의 기능을 갖도록 반 칸 폭으로 계획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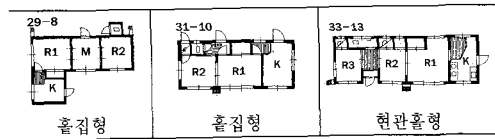


그림6. 다양기(1958~1959) 공영주택 평면형-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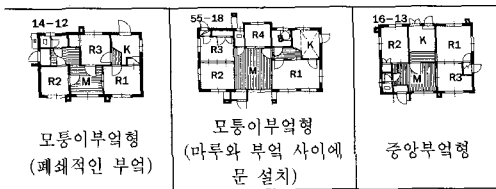


그림5. 다양기(1958~1959) 공영주택 평면형-1

둘째, 안방을 거쳐 부엌을 거쳐야 하는 모서리부엌형의 불편한 동선을 개선하기 위해 마루의 후면부 모퉁이에 부엌을 배치한 형태에서 안방을 거치지 않고 개구부를 두지 않고 마루에서 바로 출입할 수 있는 개방적인 평면형(1957, 16)이 제안되었다. 이는 '모퉁이부엌형'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평면형은 대개 전면은 방과 마루의 2칸이고 후면에 방2개와 부엌을 넣어 3칸으로 계획(3MK)되어 있다.

셋째는 부엌을 후면부의 중앙으로 배치해 전면부의 마루와 문을 설치한 평면형(이하, 마루형 평면 중 후면부 중앙부에 부엌이 있는 평면유형을 '중앙부엌형'이라 한다, 1958, 14)이 제안되었다. 이 평면형은 전자의 유형보다 마루와 부엌 사이의 주부동선을 가장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② 1960년부터 1962년까지의 특성

1960년부터는 전면 마루와 후면부 모퉁이에 위치시킨 부엌 사이에 벽이나 문은 없지만 연결부에 비교적 긴 복도를 두어서 마루로부터의 시선은 차단시킨 평면형이 등장하였다. 부엌과 마루 사이에 문을 제거해 긴 복도를 만들어 동선을 연결하고 후면부를 4칸 이상으로 분화시켜 전체 규모가 확대된 평면형이다.

특히 후면부가 4칸까지 발달되며 찬마루 형태가 아닌 독립된 식당 공간을 제안하는 사례(1961, 68)가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식침분리가 가능한 평면형이 최초로 제안되었다. 전면을 4칸으로 확장해 중앙부 마루에 부엌을 남향으로 인접시킨 평면형(1958, 20)이 제안되었다는 사실도 특기할 만 하다.

전면3칸 마루형 이외에 현관홀식이나 속복도식 및 반겹집형 등 다양한 평면형이 제안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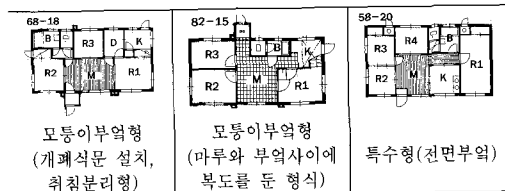


그림7. 다양기(1958~1959) 공영주택 평면형-1

었다. 먼저 현관홀식은 7평 규모의 소형으로서 현관에서 온돌방이나 부엌으로 출입이 가능한 최소 규모의 주택인 반면, 속복도식은 3K에서 5K 구성에 20평 규모까지 제안되었다. 반면 속복도식 평면은 2K부터 5K까지 온돌방 수를 최대로 확보하고자 하는 제안으로 보인다.

1961년에 홑집형 평면이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제안되었고, 부엌이 전면부에 있는 속복도식 평면형은 1962년 이후에는 더 이상 제안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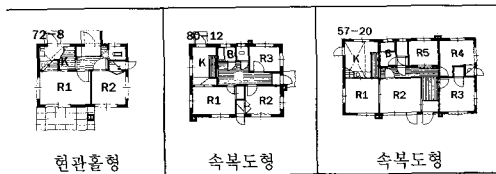


그림8. 다양기(1958~1959) 공영주택 평면형-2

이 시기의 전체적인 주요 평면 변화는 안방을 거쳐 마루로 출입할 수 있는 부엌의 불편한 동선 관계를 개선하고 안방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부엌 배치와 동선을 개선한 다양한 평면형이 제안되었다. 반면 평면 구성은 대개 방3개를 가진 마루형 평면(3MK)이 정착된다. 마루형 외에도 홑집형을 포함해 반겹집형과 속복도형 등 많은 실험적인 평면형을 제안해 다양한 주거 수요계층의 반응을 수렴하게 되는 과도기라 볼 수 있고, 우리나라의 공영단독주택평면 유형이 가장 다양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제안되었던 시기라 평가할 수 있다.

3) 1963년부터 1965년(변혁기)의 평면형

1962년 대한주택영단에서 대한주택공사 체제로 출범된 이후인 1963년부터 더욱 혁신적인 변화가 시도되었다.

첫째, 전면부에는 안방, 마루, 건넌방의 전면 3칸으로 구성하고 후면부의 가운데 칸에 부엌을 배치해 마루와 부엌이 세로방향으로 개방

되도록 구성된 평면이 제안되었다. 이는 1958년도의 평면 사례(1958, 26)인 후면부 중앙부에 개폐식 문을 둔 초기의 중앙부엌형을 참조해서 마루와 부엌 사이의 출입문을 생략하고 마루와 부엌 공간을 하나의 영역으로 연결한 평면형이다. 이러한 개방적인 중앙부엌형은 1963년에만 5가지가 제안되었다.

부엌을 개방적으로 계획하려는 평면 구성 분위기에 편승해 측면부에 부엌을 배치하고 마루와 개방시킨 실험적인 평면형(1963, 99)이나 또는 부엌을 전면부에 두는 특수한 평면형도 한시적으로 선보였다.

1963년에는 2칸 마루형 및 家具 可變 방식이 가능한 자녀들의 온돌방이 있거나(1963, 98), 속복도형으로서 개구부가 있는 사례 또는 전면4칸 현관홀형으로서 전면에 부엌을 둔 평면형(1963, 42) 등 당시 새로운 생활형을 탐색하고자 하는 실험적 성향의 평면형이 제안되었다.

이 외에 1963년도에 개방적인 모서리부엌 평면형도 계속 제안되며, 입주자들의 반응이 반영될 수 있는 적용 기간을 거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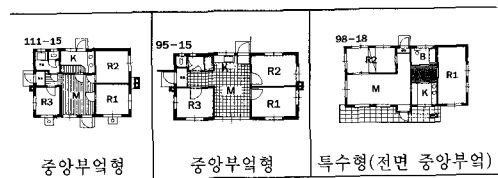


그림9. 변혁기(1963~1965) 공영주택 평면형-1

둘째, 전면 2칸 구성방식의 평면형이 다시 나타났다. 1950년대 중반의 폐쇄적인 모퉁이부엌형 평면의 경우와 달리 1964년 마루를 중심으로 각 온돌방과 부엌에 개구부를 통해 직접 출입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당시 전면 3칸 마루형의 영향이라 볼 수 수 있다. 이 외에도 전면 2칸의 평면형 중에서 1965년 마루를 두지 않는 3종의 평면형이 제안 되었다. 이는

전면에 두 개의 온돌방(R1/R2)을 계획한 속북도를 갖는 3K형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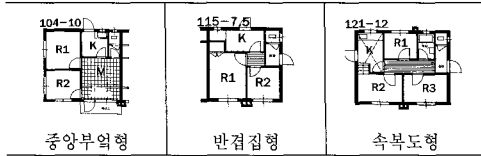


그림10. 변혁기(1963~1965) 공영주택 평면형-2

4) 1966년 이후(정착기)의 평면형

① 1966년부터 1968년까지의 특성

이 시기의 특성으로서는 첫째, 1966년 이후는 공영주택형으로 모두 마루형 평면으로 정착된다. 특히 1960년을 전후에 제안되었던 마루와 부엌 사이에 문이 있거나 복도를 두는 모통이부엌형으로 정착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마루와 부엌을 개방하는 중양부엌형은 1963년 이후부터 더 이상 제안되지 않는다. 개방적인 중양부엌형은 주부동선을 단축시킬 수 있고 주택 내부공간을 개방적인 환경으로 개선시킨 장점은 있으나, 마루에서 직접 재래식 부엌이 내려다보이는 불편함과 음식냄새나 취사 공간 등의 주부 생활공간을 방문자들에게 직접 노출시키기를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당시의 주거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단지 개방적인 중양부엌형은 1970년대 말 난방설비의 도입으로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어 입식부엌생활형이 정착된 이후에 민간주택에서 다시 적용되는 선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루와 부엌 사이에 개폐식 문을 달거나 복도를 확보해 시선을 차단시키는 모통이부엌형이 널리 보급되었고 대표적인 주거형으로 정착되었다.

둘째, 1966년 이후 공영주택 계획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먼저 후면부와 전면부 경계 박공 처마선과 내부 내력벽면을 일치시켜 내

부구조를 간략하게 한 평면으로 조정되는 경향을 갖는다. 또한 1968년 이후 후면부의 칸수를 늘이거나 찬마루가 넓어지는 경향 등 칸수의 분화, 발달현상이 뚜렷해진다. 후면부의 분화는 부엌 내부에 수납이나 식모가 기거할 수 있는 방이 부속되는 평면(4MK, 1968, 148) 등으로 발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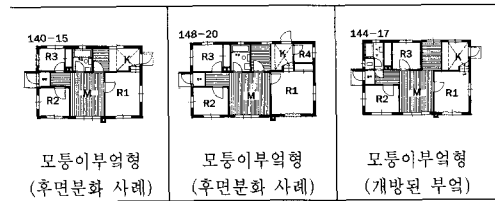


그림11. 정착기(1966~1969) 공영주택 평면형

② 1969년 이후의 특성

1969년 이후에는 장방형 평면에서 벗어나 안방 부분이 전면으로 돌출된 요철식 외곽의 계획이 본격적으로 제안되었다. 이로 인해 부엌과 마루간의 연결이나 단위 공간크기 조절에 융통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되었고 채와 마당의 내외부 공간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조성될 수 있는 공간구성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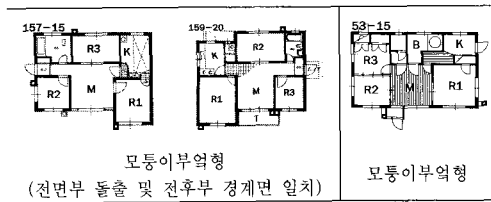


그림12. 정착기(1966~1969) 공영주택 평면형

4-3. 광복이후 공영주택주택 변화 특성

1) 광복이후 평면형별 특성

광복이후의 점집의 마루형과 마루가 없는 현관홀과 속북도형 그리고 홑집으로 구분해 주거형별 동선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마루형 평면 중 '모통이부엌형' 평면의

정착 특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부엌과 마루 사이에 문을 달거나 문을 생략하고 복도를 두는 세부유형들이 공영단독주택 제안 중 가장 많고 197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가장 대표적인 공영주택 평면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마루형 평면 중에서 1957년부터는 안방과 부엌의 접합관계가 해체되고 마루와 부엌이 인접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1963년부터는 마루와 부엌 사이가 완전히 개방된 ‘중양부엌형’ 제안되는 변혁을 가지게 되었다. 1964년에는 전면 2칸에도 개방적인 부엌을 갖는 평면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제안된 공영주택 평면형 중에서 가장 큰 근대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마루형 평면<sup>24)</sup>은 광복직후 소규모의 겹집 형태로 출발하여 1950년대 말부터 20평 규모로 확대되며 다양한 변화형을 제시하게 되었다. 즉, 겹집형식을 근간으로 해서 후열부의 분화과정이 나타나며 욕실이나 온돌방의 추가 확보 또는 찬마루나 독립적인 식당 공간이 출현하게 되며 생활기능도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현관홀형은 7평에서 9평 규모로 방 두 개와 부엌과 현관, 화장실을 갖는다. 이와는 달리 속복도식 평면은 15평 전후의 규모에 온돌방은 3개 이상 확보한 경우로서 경제적인 이유를 가진 현관홀과 달리 변용된 일본식 주거형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실험적인 성격을 갖고 1965년까지 제안되었다.

셋째, 홀집형도 제안되었다. 이 중에 1956년과 57년에 각각 제안된 반겹집형은 1956년의 현관홀형에서 현관 마루가 추가된 형태이다. 이 영향으로 1959년 이후부터 1961년까지

1961년까지 5종류의 홀집형태로 제안되었다. 홀집형은 대부분 一자형으로서 현관이 있고 현관홀을 거쳐 각 방으로 진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전면부가 3칸 이상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방을 거쳐 내부로 안방이나 부엌으로 진입하는 방식이므로, 전통 재래주택처럼 외부에서 각 방으로 출입하는 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다.

2) 광복 이후의 공영주택 시기별 변화특성  
광복 이후의 시기별 공영주택 변화 특성을 종합해 볼 수 있다.

첫째, 1954년부터 안방을 거쳐 마루로 출입하는 겹집 형태의 폐쇄적인 ‘모통이부엌형’이 처음 출현되었다. 이는 재래 민가의 부엌, 안방, 마루, 건넌방의 연결 동선을 갖는 전면 4칸의 홀집 주택외형은 광복이후 주택이 전면 2칸, 측면 2칸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부엌, 안방, 마루, 건넌방의 재래식 동선을 그대로 계승하며 겹집화 단계를 거치게 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공영주택 초창기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둘째, 1957년부터 1962년까지는 전면 2칸, 측면 2칸의 모통이부엌형 방식이 면적이 15평 내외의 전면 3칸, 측면 2칸 집으로 규모를 확대해서 적용되었다. 한편 재래식의 불편한 부엌 동선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평면형이 제안되는 시기이다. 1960년 전후에 주로 마루형 이외에도 속복도나 현관홀이나 홀집형 등의 특수형 등 평면형이 제안되었다. 이 시기를 공영주택의 다양화로 접어드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셋째, 1963년 이후에는 마루와 부엌을 하나의 영역으로 개방시켜 주부생활 영역을 쇄신한 개방적인 ‘중양부엌형’을 제안하게 되었다. 과거 안방과 부엌이 그들로 결합된 재래의 주

24) 광복직후 미군정의 요청과 주택영단 후원으로 국민주택현상설계를 공모하였다. 당선자 이종원, 천호철, 김희춘은 마루형과 속복도형이 절충된 평면형을 제안하였다.

택계획과는 차별화된 주거형을 제시한 것이다. 그 후 몇 년간 이러한 개방적인 평면형을 포함해 홑집형 등 다양하게 제안된 평면형들에 대해 입주자들의 적응 기간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다. 따라서 이전에 없었던 주부 생활영역인 부엌과 가족단란의 마루공간이 평면의 중심이 되는 새로운 주거형식이 나타난 변혁기를 맞이하였다.

넷째, 1966년 이후부터는 마루형 이외의 숙박도나 현관홀 혹은 홑집형 등 특수한 평면형은 전혀 제안되지 않았고, 마루형 중에서 마루와 부엌 사이에 문을 달거나 복도를 두는 '모통이부엌형'으로 수렴되어 가는 마루형 평면의 정착기라 볼 수 있다. 이는 부엌을 평면의 중앙부에 배치해 마루와는 공간을 개방적으로 구성하는 방법보다는 여닫이문이 있는 개폐식의 방법이나 후면·모서리부에 부엌을 두어 공간을 다소 분리시키는 방법이 당시의 생활여건에 더욱 적합해서 선택되어 널리 정착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주택 외형이 광복이후에 압축과 정에서 근대적인 마루형 형태의 새로운 겹집형으로 변모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 5. 광복 이후 공영주택 변화 비교

### 5-1. 광복 이전 공영주택 변화 의미

광복 이전의 도시형한옥과 일본식 공영주택을 중심으로 평면 특성을 종합해 볼 수 있다.

첫째, 안방과 부엌은 구들과 아궁이를 통해 연결( $R_1-K$ )된 우리나라 주거의 가장 근원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이었으며, 광복 이전의 거의 모든 평면형에서 지속되는 질서였다.

둘째, 부모와 출가한 장자(長子)부부 간에 공간 분리를 유지하거나 개인의 프라이버시 공간과 접객행위공간을 구분시킬 수 있도록 안방과 건넌방의 사이에 마루라는 완충공간을

두었다( $R_1-M$ ,  $M-R_2$ ).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마루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과 방 사이에 벽을 두는 방법( $R_1/R_2$ )도 나타난다. 이러한 기초단위 차원의 연결 패턴은 광복전후기의 모든 평면형에서 반복된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일본식 공영주택의 경우는 광복 이후의 공영주택평면과는 다소 이질적인 공간구성임을 알 수 있다. 즉, 광복이후 공영주택 평면형은 재래의 부엌, 안방, 마루, 건넌방( $K-R_1-M-R_2$ )의 연결 질서가 지속되고 있는 내용이라 평가할 수 있다. 외형은 근대 도시적 환경에서 채의 형태가 도시형한옥의 형식에서 더욱 압축되어 안마당을 중심으로 채가  $\Gamma$ 자나  $\square$ 자형으로 조정되었다. 이 단계에는 부속체에 해당하는 대문간 등의 일부 공간요소들은 소거(消去)되고 현관과 화장실 등은 인접관계나 방향관계에 따라 부가(附加)되어 동일한 평면형을 기반으로 해서 세부적인 평면 변화형을 전개시키게 된다.

### 5-2. 광복 이후 공영주택 변화의 의미

광복 이후에는 광복 이전의 일본식 공영주택의 영향과 함께 광복 이후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추어 새롭고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게 된다. 광복전후 기간에 걸쳐 공영주택 유형별로 통시적인 변화 특성과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현관홀형은 일제강점기 일본식 공영주택 중 '丙型'이나 '丁型'의 경우와 같이 극소규모의 현관홀을 통해 부엌, 안방, 온돌방으로 각각 출입하는 동선 구조를 갖는다. 전체는 전면 2칸, 측면 1칸 반의 규모이다. 이때 전면 2칸에 방이 두 개 인접해 있는데, 상호간에 미서기문을 달아 융통성 있게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광복이전의 오막살이계 민가의 경우처럼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마루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과 방 사이에 벽을 두는 방법

(R1/R2)을 갖는 현관홀식 평면이 제안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 속복도형은 전면은 2칸에서 4칸이며 측면은 2칸이다. 규모는 12평에서 20평 규모까지로 3K와 5K로 계획된 형태이다. 현관홀형과 같이 일본식 공영주택의 ‘甲型’이나 ‘乙型’의 경우와 다소 유사하게 속복도가 주택의 전체 내부동선이 된다. 일본식 공영주택은 속복도를 중심으로 전면부와 후면부 사이를 구분하고, 전면 3칸에는 마루가 없고 다다미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호 이동이 가능하도록 미서기문으로 구획되어 있다. 후면부에는 부엌이나 화장실, 욕실, 현관 등 부속 용도의 실을 배치해 전면부와 후면부 사이에는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으나 전면부 다다미방들의 사이에는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어려운 평면형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광복이후 공영주택의 경우에는 전면부의 각 온돌방 상호간에는 벽으로 구획되고 각 실 간은 속복도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후면부에도 온돌방을 배치해 방의 수를 최대한 확보하려는 계획 방법에서 광복 이전의 주거형과 다소 차별화를 시도한 사례라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속복도형은 재래 민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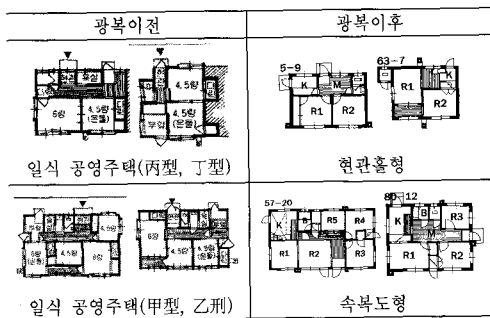


그림 13. 일본식 공영주택과 현관홀형 및 속복도형 비교

서는 유사 사례를 찾아볼 수 없고, 외형상 일본식 평면형과 유사성을 갖기에 일본 주거문

화의 영향을 받아 일식 공영주택을 광복 이후에 새롭게 변모시킨 것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홑집형태 중에서 1956년과 다음해에 걸쳐 반겹집형이 제안되었다. 방과 방 사이에 현관마루를 도입한 평면형이다. 재래 민가의 부엌-안방-마루-건넌방의 관계에서 안방-현관마루-건넌방으로 그리고 부엌은 현관마루에서 출입하는 방식으로 변용된 형태이다. 이는 일본식 공영주택의 영향을 받은 1956년 현관홀형에서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현관마루가 삽입된 형태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재래민가와 일본 주거 문화접촉으로 생긴 변형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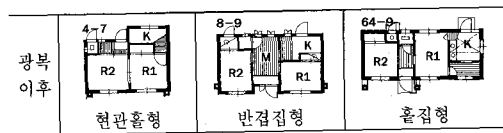


그림 14. 현관홀 및 반겹집형과 홑집형의 비교

반면, 홑집형은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외형적으로는 전통 민가형과 가깝게 변모시킨 평면형태로 5종이 제안되었다. 내부적으로는 칸과 칸 사이의 동선연결 방법은 마루가 없이 방 사이에 미서기문이나 반 칸 규모의 갖복도로 둘러갈 수 있는 내부 동선으로 변형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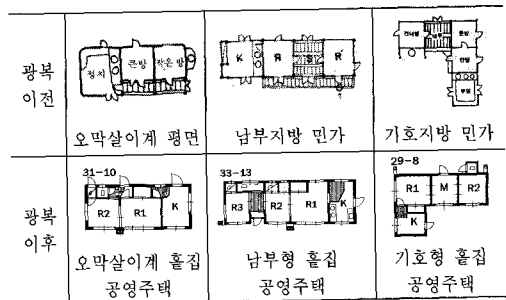


그림 15. 광복전후 홑집 평면형 변화비교

따라서 안방과 건넌방(R1/R2) 그리고 부엌과 안방(K-R1)의 기초 연결단위만 지속되고 복합단위 차원의 (부엌-)안방-마루-건넌방의 관계

나 부엌-안방/건넌방의 관계는 변화가 시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곱은자형의 기호지방민가와 오막살이계 안채(부엌-안방/건넌방)와 유사한 2K 규모(부엌/안방-건넌방)의 사례나 -자형의 남부지방 민가형(부엌-안방-마루-건넌방)이 조정된 3K나 4K의 평면형(부엌-안방-(건넌방-)현관마루-건넌방)이 제안되어 일시적이지만 재래민가의 안채의 공간구성 질서를 다소 직설적인 방법을 통해 근대적 변용을 시도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공영단독주택 중 마루형이 가장 많이 다양하게 제안되어서 그 변화 양상도 다소 복잡하다.

근본적으로는 마루형에는 우리나라 재래주택의 가장 근원적이고 상징적인 안방의 구들과 부엌의 아궁이로 연결(R1-K)시키거나 마루가 내부동선의 중심(R1-K-R2)이 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근대기 곁집화 과정에서도 안채 구성요소를 그대로 흡수해 유지해 왔다. 이는 광복이전 도시형한옥의 압축과정<sup>25)</sup>에 이어 광복이후에 다시 주택규모와 형태가 전면 3칸이나 2칸까지 압축되며 곁집화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광복이전		광복이후
		
1단계) 홑집 남부형 재래민가 안채	2단계) 도시형 한옥 1차 압축 과정: 안채와 바깥채의 연결	3단계) 마루형 압축(곁집화) 과정: 안채와 바깥채의 결합

그림 16. 광복전후기의 홑집의 곁집화 과정

그 세부 유형으로는 부엌의 위치와 마루 또는 안방과 연결되는 개구부 문의 설치나 제거 또는 복도 설치 등에 따라 생활동선과 공간을 달리하는 ‘모퉁이부엌형’과 ‘중앙부엌형’ 그리고

25) 도시형한옥의 연면적은 주로 20~30평 내외인 반면, 초기의 공영주택의 규모는 약 9평 규모로 계획되었다. 1960년대에 20평 규모로 점차 확대된다.

마루와 부엌 사이가 개방적인 ‘중앙부엌형’의 순서로 제안되었다.

후면부 모서리 부분에 부엌이 위치하는 평면형은 재래민가의 안채가 갖는 부엌-안방-마루-건넌방(K-R1-M-R2)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는 계열이다. 반면 곁집화되며 동선구조 개선과 함께 주거규모가 확장되며 주로 후면부에 필요 실들을 수용하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 세부적으로는 1954년 전면 2칸의 폐쇄적인 ‘모퉁이부엌형’이 1957년부터 전면 3칸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후 1959년 마루와 부엌 사이에 문을 설치하는 평면형이 제안되었고, 1960년에는 마루와 부엌 사이에 복도를 두고 개방하는 방식으로 변용되어 갔다(그림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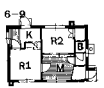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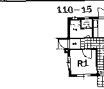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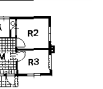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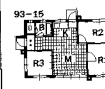
		
1단계) 모퉁이부엌형 (폐쇄적인 구조로 적용)	2단계) 모퉁이부엌형 (마루와 부엌 사이 문 설치)	3단계) 모퉁이부엌형 (마루와 부엌 사이에 복도)
		
1단계) 전면3칸 중앙부엌형 (개폐식 문 설치)	2단계) 전면3칸 중앙부엌형 (개방식 구성)	3단계) 중앙 부엌형 (전면2칸에 적용)

그림 17. 광복이후 마루형 평면의 변화 과정 비교

반면에 후면부 중앙부에 부엌이 위치하는 평면형은 다른 변화 경로를 갖는다. 즉, 1957년 마루와 부엌 사이에 문이 있는 ‘중앙부엌형’에서 1963년에 문을 제거한 개방적인 중앙부엌형으로 변화되었다. 그 후 1964년에는 전면 3칸에서 전면 2칸 축소된 중앙부엌형이 제안되었다. 이러한 ‘중앙부엌형’은 우리나라 민가 안채의 원형적 질서인 부엌과 안방의 연결 관계(K-R1)가 해체되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는 재래민가의 안채가 갖는 부엌-안방-마루-

건넌방(K-R1-M-R2)의 질서가 전면부의 안방-마루-건넌방(R1-M-R2)의 관계는 유지되고 겹집화 되며 후면부에 부엌과 전면부의 마루와 연결(R1-M)되는 새로운 질서가 발생하였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내밀한 안방과 부엌의 여성영역에서 가족공간인 마루가 연계시킨 계획 방법은 다른 평면형에 비해 근대적인 주거형으로 이행되었다는 지표로 볼 수 있다. 특히 마루와 부엌이 개방되는 ‘중양부엌형’은 입식부엌시설 완비를 전제로 하기에 1960년대 중반의 기술적인 수준<sup>26)</sup>으로는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 계획원리는 현재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의 평면형의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18). 후면 중양부에 부엌을 배치해 마루와 개방시키는 방법을 적용한 이유에는 근대기의 고밀한 환경에서 나타난 겹집의 폐쇄적인 내부공간을 재래민가의 흘집같이 개방적으로 사용하려는 주의식(注意識)도 반영되는 복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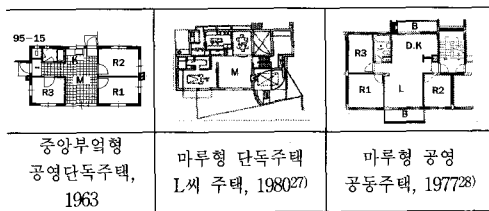


그림 18. 중앙개방식부엌형의 재해석과 적용사례

마루형의 경우를 종합해 볼 때, 70가지의 다양한 방법으로 평면형을 변용시켜가는 과정에서 전면부에는 안방과 건넌방의 사이에 마루라는 완충공간을 두는 전면 3칸 구성 방법

(R1-M-R2)의 연결 질서는 유지시켜 왔고, 후면부와의 관계는 재래로부터의 부엌과 안방간의 연결 고리를 해체하고 후면부에는 근대적 설비공간을 배치해 근대적 요구를 수용한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5. 광복 전후의 평면형별 단위공간요소 관계

구분	평면형 단위공간요소 연결기호	통시적 변화		공시적 특성	
		기초 단위	복합 단위		
광복 이전	재래주택 기호지방 민가 남부지방 민가 요막살미계 민가	R1-K R1-M	K-R1-M-R2	마루 부가, 규모 차이	
	일제강점기주택 도시형민족	R1-K R1-M	K-R1-M-R2	흘집과 겹집형, 마루형 과 속복도 형	
	연단 주택	겹집, 들형	R1-R2		K R1-R2-R3
		병형, 정형	R1-R2	K R1-R2	
광복 이후	마루형	묘동이부엌형(폐쇄적)	R1-K1	R2-K M-R1	안채질 서 유지 (압축)
		모퉁이부엌형(문실치)	R1-M R2-M	R2-K M-R1	
		묘동이부엌형(문실치)	K-M	R2-K M-R1	
		중양부엌형(문실치)	R1-M R2-M	K-R2 M-R1	안채질 서 변용 (압축)
		중양부엌형(개방)	R2-M	K-R2 M-R1	
		현관홀형 속복도형	K-E R1-E R2-E	E-K R2-R1	
	흘집형	안집질형	R1-c R2-c	K R2-R1	일식공 영주택 과 흘집 변용
			M-R1 R1/R2	K-E R1-R2	
	흘집형	흘집형	K-R1 R1-M	K-R1-M, R1-M-R2, K-R1-M-R2	흘집 변용

주) - 표기는 실 간의 동선 연결표기

26) 1962년경에 연탄개별은수보일러가 주택 도입되었고, 본격적으로 입식부엌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배관 매설식 온돌방식은 1970년대 후반부터 가능해졌다.

27) 윤아원, 1960년 이후 작가주택의 유형변화와 특성연구, 부산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05, p60

28) 대한주택공사단지계획총람1970-1977, p261

종합적으로 볼 때, 광복 이후에도 공영주택 형식으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대 주거형을 배태해 왔다. 이러한 광복전후에 나타난 평면형에 대해 동선관계를



기호적 관계에 의한 시계열적 표현 방법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표5.>는 평면을 구성하는 단위공간요소를

기초단위와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복합단위로 기호화해서 평면유형별 차이에 대해 변화 특성을 종합하고자 하였다.

표6. 광복전후 주거형의 시계열적 변화



주) 도면내의 음영표기부분은 현관, 화장실, 수납공간, 통로 등의 표현임

광복 전후 기간에 근대 주거형으로 이행되어 가는 공영주택의 시계열적인 변화과정을 <표6.>과 같이 기호적 방법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 6. 결론

광복 전후 기간에 있었던 재래민가형식이 왜래주거 문화집변과 근대적 상황을 거치며 다양한 경로로 우리나라 근대주거형이 공영주택의 평면형을 통해 성립되는 과정을 종합하였다.

첫째, 광복 이후 공영단독 주택형식으로 다양하고 실험적인 평면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평면형을 홑집과 겹집으로 대별해서 분석하였다. 먼저 홑집에는 재래민가와 유사한 형태와 일본식 공영주택의 영향을 받은 반겹집 평면형이 1965년까지 제안되었다. 겹집에 속하는 현관홀형은 소규모의 재래 오막살이계와 일본식 공영주택형과 절충된 형태이고, 속복도형은 일본식 속복도식을 변환시켜 다소 대규모로 제안된 평면형이라고 분석하였다. 반면 마루형은 공영주택 중 가장 많고 공영주택 제안이 종료되는 1977년까지 제안되었다. 따라서 마루형이 공영주택 평면형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제안되었고 널리 수용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둘째, ‘마루형’ 공영주택에 대한 주거사적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마루형은 다양한 방법으로 평면형을 변용시켜가는 과정에서도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 마루라는 완충공간을 두는 전면 3칸 구성방법(R1-M-R2)의 연결 질서를 유지시켜 왔다. 또한 재래로부터의 마루와 부엌의 동선관계를 개선해 주부동선 합리화와 가족공간중심의 평면형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후면부와와의 관계는 재래민가로부터 있었던 부엌과 안방의 연결 고리를 해체하였고 후면부에

는 근대적 설비공간을 배치해 근대적 요구를 수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 결과 향후에 전면부와 후면부로 결합된 현재와 유사한 겹집 형태의 마루형 평면이 정착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공영단독주택의 제안 내용을 분석한 결과 1954년부터 1965년 사이에 평면 유형이 모두 제안되었다. 1966년 이후에는 이들 중 마루형 평면형으로 집약되며 근대 주거형으로 정착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넷째, 후면부 모서리와 중앙부에 부엌 위치와 마루와 안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공영주택의 미시적인 변화 특성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후면부 모서리에 부엌이 있는 평면계열은 1954년 전면 2칸의 ‘모퉁이부엌형’이 1957년부터 전면 3칸으로 확대 적용되었다. 이후 1959년 마루와 부엌 사이에 문을 설치하는 형태로 변용되었고, 1960년에는 복도를 두어 마루와 부엌 사이에 공간을 개방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반면에 ‘중앙부엌형’ 계열은 다소 다른 변화 경로를 갖는다. 즉, 1957년 전면 3칸 중앙부엌형에서 1963년에 마루와 부엌 사이를 완전 개방적으로 구성하는 중앙부엌형으로 전개된 이후 1964년에 전면 2칸으로 축소, 적용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면부는 재래민가와 흡사한 안방-마루-건넌방이라는 질서가 유지된 반면, 후면부는 온돌방이나 찬마루 규모의 확대, 수납공간의 확보나 식침분리가 가능한 식당공간 등으로 분화, 발달시켜 다양한 근대적인 주요구(住要求)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광복 이후에 공영주택은 시대적 상황에서 새롭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근대 주거형을 배태해 왔다. 이 과정에 나타난 주거사적인 의미에서는 공영주택 형식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내재적인 주거의 근대화 과정이 지속되어 왔고 우리나라 근대 주거형 형성을 주도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가

갖는 범위와 한계에서 벗어나 공영단독주택의 평면적 질서가 공동주택과 민간주택으로 전개 되어 가는 과정을 추적해 광복전후에 있었던 근대적 주거형의 진행 과정에 대해 다양하고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1.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 二十年史, 대한주택공사, 1978.
2.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주택단지총람, 1954~1970, 1971~1977, 1978~1980, 대한

주택공사.

3. 조성기, 한국의민가, 한얼아카데미, 2006.
4. 송인호, 도시형한옥의 유형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5. 안성호, 일제강점기 속북도형 일식주택의 이식과 영향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6. 조성기, 한국남부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7. 유재우, 광복이후 '도시형표준주택'의 평면 특성과 그 영향,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7권 12호, 2001. 12.

■ 부록 : 공영주택 도면출처 목록표

구분	년도	지역	도면출처 : 대한주택 공사주택단지총람 1945-1970	구분	년도	지역	도면출처 : 대한주택 공사주택단지총람 1945-1970
1-9	54	창천동 외 2지역	184p	85-18	62	문래동 외 3지역	246p
2-9	54	창천동 외 2지역	184p	87-15	62	문래동 외 3지역	248p
3-9	54	창천동 외 2지역	185p	88-20	62	신촌동	249p
4-7	56	회기동	185p	91-11	63	장위동	252p
5-9	56	회기동	186p	92-12	63	강위동 외 3지역	252p
6-9	56,57	원호동 외 1지역	186p	93-15	63	불광동 외 3지역	253p
7-9	56	이문동 외 3지역	187p	94-15	63	수유동	253p
8-9	56, 57	이문동 외 4지역	187p	95-15	63	수유동 외 1지역	254p
14-12	57	원호동	192p	97-17	63	수유동 외 7지역	256p
15-12	57	원호동	192p	98-18	63	수유동	256p
16-13	57	홍제동	193p	99-19	63	수유동	257p
17-13	57	홍제동	193p	104-10	64	갈현동	262p
24-13	58	혹석동 외 4지역	201p	105-12	64	갈현동	262p
26-15	58	회기동 외 2지역	203p	106-12	64	갈현동 외 2지역	263p
29-8	59	김포	206p	107-12	64	우이동	263p
30-10	59	신길동 외 2지역	207p	110-15	64	장위동	266p
31-10	59	신길동 외 2지역	207p	111-15	64	황안동(부산)	266p
32-13	59	북가좌동 외 4지역	207p	113-18	64	황안동(부산)	268p
33-13	59	북가좌동 외 2지역	208p	115-7.5	65	망우동	270p
34-15	59	상도동 외 5지역	209p	120-12	65	망우동	273p
35-15	59	불광동 외 2지역	209p	121-12	65	아현동	273p
36-15	59	육인동	210p	122-15	65	망우동 외 1지역	274p
38-18	59	대방동 외 4지역	211p	123-12	66	화곡동	274p
52-15	60	우이동	222p	127-15	66	화곡동	278p
53-15	60	우이동	222p	128-15	66	화곡동	278p
54-18	60	우이동	223p	129-17	66	화곡동	279p
55-18	60	우이동	223p	130-17	66	화곡동	279p
56-19	60	이태원	224p	135-15	67	진주, 수원	285p
57-20	60	이태원	224p	138-15	67	화곡동 외 1지역	288p
58-20	60	이태원	225p	139-15	68	화곡동	288p
63-7	61	왕십리	231p	140-15	68	화곡동	289p
64-9	61	왕십리	231p	143-17	68	화곡동	292p
67-18	61	이태원	233p	144-17	68	화곡동	292p
68-18	61	이태원	233p	145-17	68	화곡동	293p
69-18	61	우이동	234p	147-20	68	화곡동	295p
70-21	61	이태원	234p	148-20	68	수성동	295p
72-8	62	장위동	235p	153-15	69	개봉동	300p
77-20	61	이태원	234p	154-16	69	개봉동	300p
80-12	62	신촌동	243p	155-18	69	개봉동	301p
82-15	62	신촌동 외 11지역	245p	156-18	69	개봉동	301p
83-15	62	성수동 외 8지역	245p	구분	년도	지역	총합 1970-1977
84-15	62	동인동 외 8지역	246p	157-15	74	삼송리	220p
* 구분 항의 숫자는 조사도면 번호와 평형을 의미(예, 83-15에서 '83'은 도면번호이며, '15'는 평수를 의미)							
				158-18	77	옥포동	240p
				159-20	77	동월동	248p

# A Study on the Modern Transformation on Public Residential Houses through the Changes of Plan Types

Yoo, Jae-Woo

(Assistant Professor, Pusan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on the premise that plan types of the public residential houses proposed after the 1945 implicatively showed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modern housing. The formal characteristics created through the developing process were analyzed in Micro-Historically. Moreover, by providing a new viewpoint on the changes of the residential houses that occurred around 1945, we tried to provide the fundamental research background for the research on the developing processes of the future housing cultures.

The research pursued mainly on the major spaces that became the modern change indices of housing plan changes from the traditional housings in 1940s to the modern housings such as the master bedrooms(An-Bang), kitchen, the main floored-space(Maru), and the secondary bedroom (Kune-Bang). The major experimental subjects are the 87 public residential plan types designed and supplied by the Korea Housing Cooperation in between 1945 and 1970.

The study synthesized the developing process of the public residential houses from the traditional residential houses in 1940s through modern situation and intrusion of foreign housing cultures.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rom the study:

First, various and experimental housing plan types had been proposed as public residential houses since 1945. Among them, the plan having the main floored-space(Maru) were the representative type of public residential houses and various series of houses were constructed based on this type. Second, the main floored-space(Maru) type had continued building connection order of the R-M-R that were used in the traditional houses. On the other hand, with decomposition of connecting ring between the main floored-space(Maru) and the kitchen, rationalization of women circulations and introduction of family-centered spaces had been resolved the demands of modern society. It had greate effect on settlement of the current double-row Maru plan type. Third, in Korea most of plan types for the public residential houses were proposed in between 1945 and 1965. Forth, the location of kitchen and relation between Maru and the master bedroom were arranged visually on the corner and center of the rear row with the micro change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residential houses. In this process, the front row was similar with traditional residential houses but the rear row was differentiated and developed with expansion of Maru and Ondol rooms, increase of closet spaces, and introduction of kitchen that divided spaces for sleeping and eating.

---

Keywords : Public Houses, Modern Housing, Modernization, Korea Housing Cooperation